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지혜서1,13-15; 2,23-24

### 화답송



(후렴) 주님, 저를 구하셨 으 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 이 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코린토 2서 8,7.9.13-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마르코 5,21-43

## 성가 | 입당성가 [55]

예물준비 [213]

영성체 [178]

파견 [472]

##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허오봉 빅토리아노	허강원 카타리나
이정진 안토니오	가족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생미사	봉헌
2024년 성령대회 봉사자들	양미숙 마리아
송준호 바오로 영명축일(6/29)	요셉회 일동
강만중베르나르도, 조정희세실리아	강호영 안드레아
김정옥율리아, 장성형 세자요한	장민우레아 이태주레오
한윤진 빠른채유	민지은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6월 30일	배수아	김진수	류유리	류유리	민덕미	양글라라 김실비아
7월 7일	백이백	강호영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이유스티나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96,023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제 41차 미동북부 지구 울뜨레야 대회**

일시 : 7/4(목) 9:30am 메이플우드 성당

\*본당울뜨레야가 '우정의 시간'에 연극과 울동으로 참가합니다. 꾸르실료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할수 있으니, 많은 교우분들 환영합니다.

문의: 민필립보 929-444-1411

**▶제 28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에페6,17

일시: 7/27(토), 7/28(일) 9am~ 버겐 아카데미 오디토리움

초대강사: Fr.김재덕 베드로, Fr.정대영 모세. 참가비: \$40(점심포함)

신청: 재무데스크, 이미숙안나(성령기도회장) 917-579-5072

**▶사무실 휴무 6/25(화) ~ 7/4(목)**

본당 김효주 수녀가 2024년 북미주 수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중 피정 및 수녀 총회에 참여하오니,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실은 휴무이며, 각종 증명서 발급은 7월 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리첫만남: 2024년 10/12(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 주일 오전 11시/교육관 3A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여름철 미사 참례 복장 안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공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하느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시다. 소매없는 옷, 슬리퍼에 맨발, 심한노출은 삼가바랍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공지사항: 축제의 복장으로 가장 품위있고, 아름답고, 좋은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미사 참례한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2024 청년성서모임 여름학기 그룹원 모집**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받은청년  
과정: 창세기,탈출기,마르코, 요한  
마감: 7월 7일(일)

첫모임: 7월 14일(주일)12pm(참석필수)

장소: 다미안홀. 대표봉사자: 배수아 212-810-9128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가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단장: 정다경마리아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매주일11am단장: 이기원 스테파노929-208-5147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누가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을까?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르 5,36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청을 받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가시던 길에서 만난 하혈하는 여인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와 하혈하는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간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즉,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하느님 구원의 힘이 전달된다는 믿음을 마르코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로 딸의 경우처럼, 그분과의 만남은 실제적인 접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혈하는 여인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받을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며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에게 이루어졌기에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상에서 체험되는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 앞에서 ‘당혹스러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같은 혼란에 빠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마르 5,34) 하며 축복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5,36)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쿴!’”(마르 5,41) 하고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서서 걸어 다녔습니다. 두려움 속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회당장은 사랑하는 딸을 돌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음에서 되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행적에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앙인들의 여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생 여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이들에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쁨에 두려움이 느껴질지라도, 슬픔과 고통에 희망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곡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이를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오늘 복음 말씀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박명기 다미아노 신부